

190215 우주선 오프라인 미팅

오늘 어떤 것을 합의할 것인가?

1.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하나?

1.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

민석

- 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,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트래킹이 안된다. 그래서 업무진행이 루즈해지는 것처럼 느껴짐
-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들의 디벨롭이 더디다. 일주일에 한번 회의할때라도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새로운 내용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디벨롭하고 싶은데 그러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않아서 결국 정체되는 것 같다.
- 함께 일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.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병행하면서 우주선 업무를 보는데, 너무 나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 우주선 업무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다. 개인적으로 반성.

기인

- 스타트업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협업하는게 어색하게 느껴진다. 사용하는 도구들도 생소하여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.
- 내 책임감이 너무 낮은 것 같다.

규정

- 누가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.
- 회의할때 할 일에 대해서는 많이 정했으나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.
- 비지니스의 청사진이 없다.
- 업무 분배가 비효율적이다.
- 초기 사업 활성을 위해 어떤 것을 학습해야하는지 가늠하기 힘들다.
- 기인이가 알아보기쉬운 개발현황 대시보드가 필요한 것 같다.
- 업무 마감미 부족하다.

1-1) 기인이의 스타트업 온보딩

1-2) 각자의 작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

=> Asana를 통해서 테스크 관리를 해보자.

1-3) 협업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.

월요일 10시~11시반 우주선 공식 업무시간

1-4) 작업 마감이 부족하다.

=> 1-2가 잘 정립되면 해결될 것 같다. (feat. 규정)

1-5) 스타트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역량계발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

=> 인적 네트워크를 좀 쌓아야하지않나.

2. 각자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

3. 우주선 룰 v2

1. 지금까지의 현황

1. 이걸 피치트리가서 화면 큰 걸로 공유하면서 보면 될듯

2. 우주선 v2 마일스톤

1. 어떤 기능을 추가할 것인가?

2. 언제까지

3. 새로운 기획들(feat. 새로운 먹거리), 어떤 방식으로 실험해볼까?